

# 산성의 도시 대전에 관한 기초연구

김 흥 태

## 연구자

연구책임

김흥태 / 책임연구위원

공동연구

박은숙 / 대전문화연대

## - 제 목 차 례 -

제1장 연구의 개요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제2장 산성에 관한 검토 .....	9
제1절 산성에 대한 고찰 .....	9
1. 산성의 특성 .....	9
제3장 대전시 산성의 현황 및 특성 .....	15
제1절 대전시 산성의 현황 .....	15
1. 대전시 산성개요 .....	15
제2절 권역별 산성특성 분석 .....	18
1. 계족산·식장산계 산성 .....	18
2. 금강수계의 산정 .....	35
3. 보문산계의 산정 .....	41
4. 갑천수계의 산정 .....	47
5. 계룡산계의 산정 .....	54
제4장 결    론 .....	61

## - 표 목 차 -

<표 2-1> 산성의 분류 기준 .....	10
<표 2-2> 산성의 입지 조건(지형) .....	11
<표 2-3> 산성의 입지 조건(모양) .....	11
<표 3-1> 대전시 산성유적의 국가사적/시지정 기념물 현황 .....	16

## - 그림 목 차 -

[그림 1-1] 공간적 범위 .....	5
[그림 3-1] 대전시 산성유적 분포도 .....	15
[그림 3-2] 대전시 지정 산성의 분포도 .....	17
[그림 3-3] 계족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19
[그림 3-4] 계현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1
[그림 3-5] 백골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3
[그림 3-6] 삼정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4
[그림 3-7] 갈현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6
[그림 3-8] 능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8
[그림 3-9] 고봉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9
[그림 3-10] 질현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1
[그림 3-11] 견두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3
[그림 3-12] 이현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4
[그림 3-13] 마산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6
[그림 3-14] 노고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7
[그림 3-15] 성치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9
[그림 3-16] 소문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0
[그림 3-17] 비파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2
[그림 3-18] 보문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5
[그림 3-19] 사정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6
[그림 3-20] 흑석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8
[그림 3-21] 월평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9
[그림 3-22] 구산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51
[그림 3-23] 우술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53
[그림 3-24] 성북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55
[그림 3-25] 안산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56
[그림 3-26] 적오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58

# 제 1 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대전시 관내에는 산성유적이 41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24개소는 국가사적 또는 시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소는 미지정 상태로 있다. 대전 산성 존재의 의미는 대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증명하는 문화유산이자 지리적 요충지 및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부각시켜 주는 소중한 자산임
- 그동안 문화재단체에서 산성으로 추가 발견한 것들에 대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나아가 산성지도 제작과 함께 산성 안내판 및 이정표를 세워 둘레산길을 등산하는 시민들에게 산성유적의 존재를 널리 알릴 계획임
- 산성의 분포특성을 근간으로 권역별 특성화를 위하여 관내 산성 분포조사를 실시하여 특성에 따라 4대 권역으로 나누고, 역사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테마문화 코스, 주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웰빙문화 코스, 여러 개의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 코스로 조성할 계획임
- 우선 계족산지구는 계족산성을 비롯한 여러 개의 군소 산성을 묶어 역사테마 및 웰빙문화 코스로 개발하고, 보문산지구는 보문산성과 사정성을 비롯해 오월드와 보훈공원 그리고 뿌리공원 등을 연계한 녹색관광체험코스로, 갑천지구는 월평동산성을 보수 정비하여 도시근린공원의 웰빙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함
- 아울러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 생생사업과 같은 산성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시도 적극 지원하여 권역별 스토리텔링 개발 등 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임
- 본 연구는 ‘산성의 도시 대전’이라는 도시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특히 계족산성을 대전의 대표문화유산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대전산성의 특성과 산성캠ป์를 통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있음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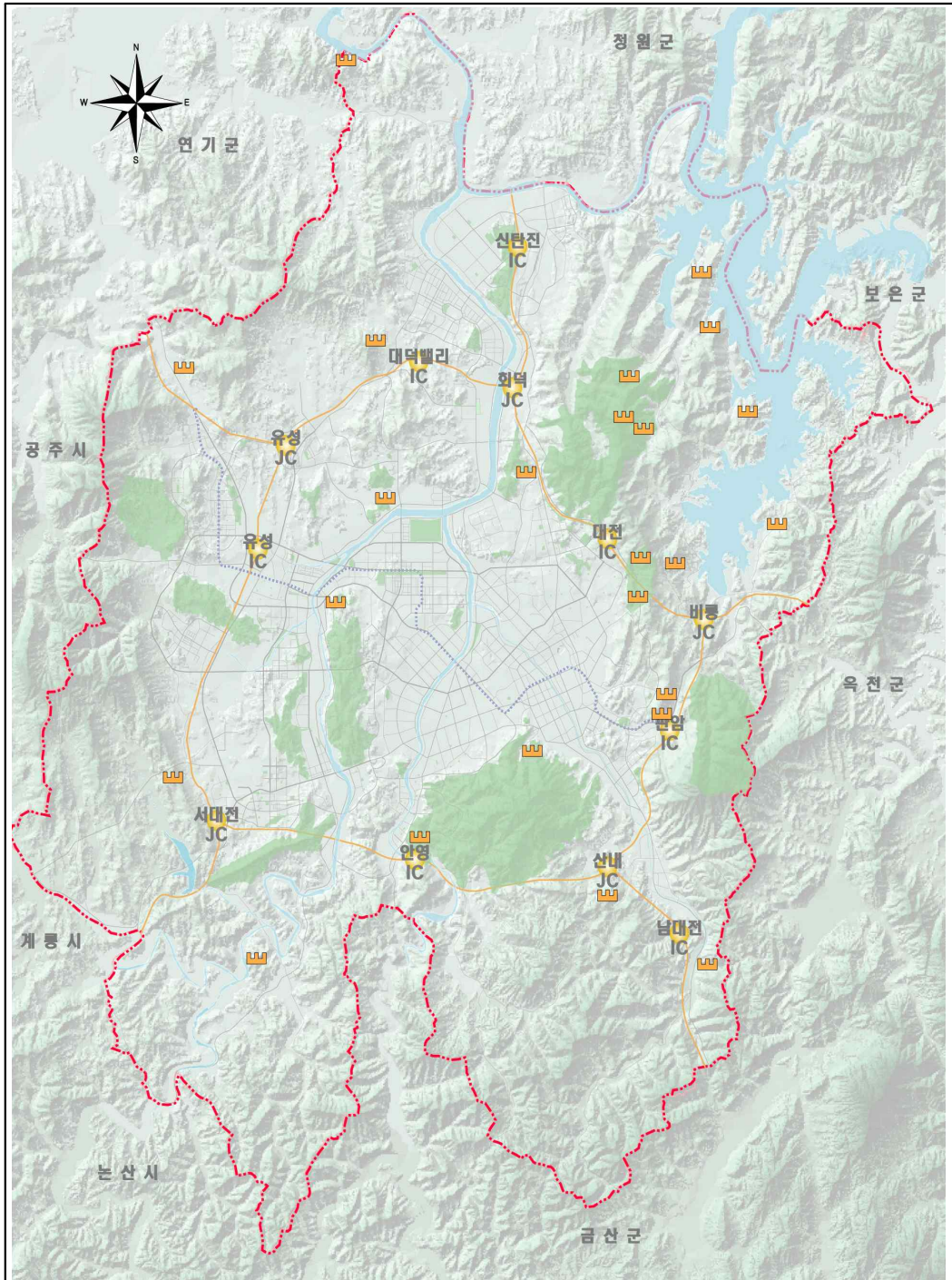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산성캠프는 2011년 7월 23~24일 실시하였음

#### 2)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1차적으로 대전의 산성유적 41개중 지정 관리되고 있는 24개 산성을 대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대전시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과 보루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3) 내용적 범위

- 대전시 산성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산성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도시의 발전의 전략으로써 장소 마케팅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을 실시함
- 대전의 산성에 대한 기초분석은 산성자체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도상으로 분석하여 공간적 특성 및 관광자원으로써의 연계방안을 검토함
- 전문기관의 공동으로 대전의 산성을 홍보를 위한 ‘산성캠프’ 를 실시하고, 동영상 제작으로 통한 미디어 홍보자료로 활용함



[그림1-1] 공간적 범위



## 제 2 장

---

### 산성에 관한 검토

---

#### 제1절 산성에 대한 고찰

---



## 제2장 산성에 관한 검토

### 제1절 산성에 대한 고찰

#### 1. 산성의 특성

##### 1) 성곽 및 산성의 정의

- 일반적으로 성곽은 도성과 읍성, 산성과 기타( 鎭·堡·墩·장성·목장성·倉城關隘 등) 유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기별로도 구분됨. 남한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된 성곽 관련 유적은 1,5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축조연대가 확실한 성터는 주로 조선시대의 것들이고, 일부 고려시대의 것과 고대의 성터가 있음
- 대전은 산성의 도시이다. 외곽 산봉우리마다 산성이 분포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최근 대전 둘레의 산길을 산행하다가 산봉우리에 붕괴된 돌무더기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다. 그 덕분에 이미 확인된 40여 기 산성에 더해, 10개의 산성이 추가로 알려지게 되었음
- 대전에 산성이 이렇게 많이 많은 이유는 삼국시대 역사적 배경과 결코 무관치 않다. 계족산·식장산 일대는 나제국경지대( 濟國境地帶)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군에게 웅진(현 공주)과 사비(현 부여)도성으로 가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6세기 후반경 진흥왕의 북진정책에 의한 백제 성왕의 관산성(대전 부근) 전사 사실은 유명하지만, 아마 대전산성은 나제 간에 있어 일진일퇴의 전쟁터였을 것으로 보임
- 대전시민과 대전시 공동의 노력에 의해, 대전산성은 오랫동안 아무런 말 없이 서 있었던 이유를, 자신만이 술한 세월 속에 간직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따끔 대전 둘레산길을 걸으면서 산성이 하는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한다. 그리고 '산성의 도시 대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

## 2) 산성의 분류 기준

- 산성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선성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저주 주체, 지형, 지리적 위치, 축성재료, 구조와 평면형태, 그리고 성의 중복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특히, 성의 축성재료는 목책성, 토성, 토석혼축성, 석성, 전축성 등이 있으며, 구조와 평면형태는 방향성, 원형성, 부정형성, 장성, 그리고 차단성 등으로 산성을 분류하고 있음

〈표 2-1〉 산성의 분류 기준

분류기준	세 부 내 용
저주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성 또는 경성 : 도읍 주위에 쌓은 성 또는 왕궁에 있는 성. (재성, 행재성)</li> <li>- 읍성 : 지방 행정의 중심지인 고을 즉 읍 전체를 둘러쌓은 성</li> </ul>
지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지성 : 바닥이 편평한 평지에 쌓은 성. 옛 성 성지에 이런 평지성이 많음</li> <li>- 평산성 : 평지와 산에 걸쳐 쌓은 성. 뒤에 산성을 의지하여 앞에 평지를 가진 성</li> <li>- 산 성 : 하나의 산을 두르거나 두 개의 산과 그 사이에 계곡을 둘러싼 우리나라 전형의 성으로 주로 산에 의거해 쌓음</li> </ul>
지리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성 : 국경의 방비를 위해 국경지대에 쌓은 관방으로서의 성</li> <li>- 해안성 : 적이 침입하기 쉬운 해안의 요소에 쌓은 성</li> <li>- 내륙성 : 해안 지대에 대하여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에 쌓은 성</li> </ul>
축성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책성 : 나무 말뚝을 촘촘히 세워서 박아 울타리처럼 만든 성으로 가장 초기에 토성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li> <li>- 토 성 : 흙으로 쌓아올린 성으로 순수한 토축성</li> <li>- 토석혼축성 : 토석 중 그 견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속에 막돌이나 판돌을 섞어서 다져 쌓은 성</li> <li>- 석 성 : 돌을 재료로 하여 쌓은 성</li> <li>- 전축성 : 벽돌로 성벽을 쌓은 성을 말하지만 시대와 제작용도에 따라 다른 성벽의 일부분 즉 여장이나 전체의 공심돈 등에 쓰이는데 아주 견고함</li> </ul>
구조와 평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성 : 평면 형태가 네모반듯한 정사각형의 성으로 평지성에 많음</li> <li>- 원형성 : 평면 형태가 둥그런 원형의 성으로 역시 평지성에 많음</li> <li>- 부정형성 : 평면 형태가 바탕이 되는 지면의 제약으로 부정형인 성</li> <li>- 장 성 : 국경지대 같은 곳에 길게 연달아 있는 성</li> <li>- 차단성 : 국경이나 요새지 등을 가로막아 적을 방비하기 위해 길게 쌓은 성으로 평야나 중요한 고개 산맥에 쌓음</li> </ul>
성의 중복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곽 : 성의 둘레를 단 한 겹만으로 쌓은 것을 말하며 대개의 작은 성들</li> <li>- 중곽 : 큰 둘레의 단곽 안에 성 안의 주요 부분을 둘러싼 작은 성이 한 가운데나 한쪽 귀퉁이에 치우쳐 있는 2중 성곽</li> <li>- 외성 : 성이 2중으로 되어 있으며 내성은 석성, 외성은 토축이 많음</li> <li>- 나성 : 본성의 한쪽에서 시작하여 돌아나간 성</li> </ul>

## 2) 산성의 입지조건

- 산성을 쌓기에 적절한 지형에 대하여, 1812년 다산 정약용은 대외 방어책으로서 저술한 「민보의」에서 변방의 요새인 보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음
- 이 분류 방법은 그 후 1867년 훈련대장으로서 수뢰포의 제작자였던 신관호가 그의 저서 「민보집설」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산성을 축조하는데 적당한 지형을 고로봉, 산봉, 사모봉, 마안봉의 4가지로 구분하였음

〈표 2-2〉 산성의 입지 조건(지형)

구 분	입 지 조 건
고로봉	- 산의 사방이 높고 중앙부가 낮아 넓은 지형, 즉 분지형으로 그 전형이 남한산성임 - 이런 지형은 성 밖에서는 성 안의 동정을 살필 수 없고, 풍부한 수원과 넓은 활동공간을 갖는 장점이 있어 다산이 4종의 지형 중 가장 좋음
산 봉	- 꼭대기가 평탄하고 넓으며 사방이 절벽처럼 급격한 경사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문자 그대로 마늘 모양으로 생긴 것
사모봉	- 배후에 장대용 봉우리가 있고 산이 마치 밀짚모자 혹은 사모관대처럼 생겨 그 아래 민중을 수용하게 된 산세
마안봉	- 2좌의 산봉우리를 연결하여 양쪽 끝이 높으며 그 가운데가 약간 낮고 잘록하게 들어가고 낮아져서 마치 재나 말안장처럼 생긴 지형

- 산성은 축조된 여건에 따라, 즉 산지를 성벽이 둘러싼 모양에 따라 산정식, 포곡식, 복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3〉 산성의 입지 조건 (모양)

구 분	입 지 조 건
산정식 (테뢰식)	- 산봉우리를 둘러싼 작은 산성들에 많은데, 옆에서 본 모습이 체를 맨 모양 같고 흡사 시루머늘 바른 것 같아서 지방에서의 호칭이 시루메, 테뢰, 메라고 부름 - 위에서 말한 정약용의 「산보지지」의 산봉형과 마안형은 대개 이 테뢰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음
포곡식	- 계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산꼭대기를 두른 산성으로 가운데 시내나 개울이 있으며 성무니 그 수구에 있음 - 이와 같이 성 안에 수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은 농성을 할 때 생활에 필수적인 물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임 - 위에서 말한 다산의 고로봉형이 이에 속함





## 제 3 장

---

### 대전시 산성의 현황 및 특성

---

제1절 대전시 산성의 현황

제2절 권역별 산성특성 분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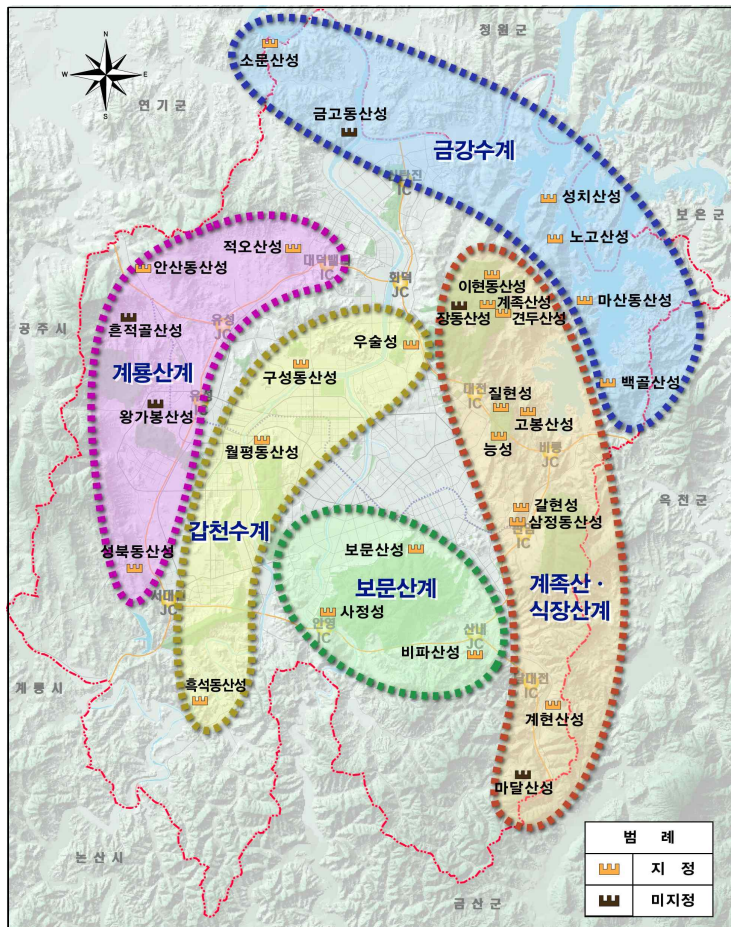


## 제3장 대전시 산성의 현황 및 특성

### 제1절 대전시 산성의 현황

#### 1. 대전시 산성개요

- 대전시에는 산성유적이 41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24개소는 국가사적 또는 시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17개소는 미지정 상태임
- 산성의 분포는 크게 계족산·식장산계, 금강수계, 보문산계, 갑천수계, 그리고 계룡산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권역별 특성화를 통한 관광자원화 할 예정임



<표 3-1> 대전시 산성유적의 국가사적/시지정 기념물 현황

산 성 명	위 치	지정일	형 태	소 유	비 고
계족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 85	1991.10.30	석축성	국유	국가사적 제355호
계현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산 3-1	1991.7.10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24호
백골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산 13	1991.7.10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22호
삼정동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관암동 산 1	1990.5.28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17호
갈 현 성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 9	1990.5.28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12호
능 성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산 1-1	1990.5.28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11호
고봉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주산동 산 19-1	1991.7.10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21호
질 현 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 31-1	1989.3.18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8호
견두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산 83	1991.7.10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20호
이현동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산 38	1993.6.21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31호
마산동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마산동 산 6	1993.6.21	석축성	국유	기념물 제30호
노고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산 43	1991.7.10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19호
성치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산 4	1993.6.21	석축성	국유	기념물 제29호
소문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산 13	1991.7.10	석축성	국유	기념물 제23호
비파산성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 18	1991.7.10	석축성	국유	기념물 제25호
보문산성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산 3-45 보문산 지붕	1989.3.18	석축성	국유	기념물 제10호
사정성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 62	1990.5.28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14호
흑석동산성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 26-1	1990.5.28	석축성	국유	기념물 제15호
월평동산성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산 12-2	1989.3.18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7호
구성동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산 4-3	1989.3.18	토축성	국유	기념물 제6호
우 술 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산 19-1	1989.3.18	토축성	사유	기념물 제9호
성북동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 20-5	1990.5.28	석축성	사유	기념물 제18호



[그림 3-2] 대전시 지정 산성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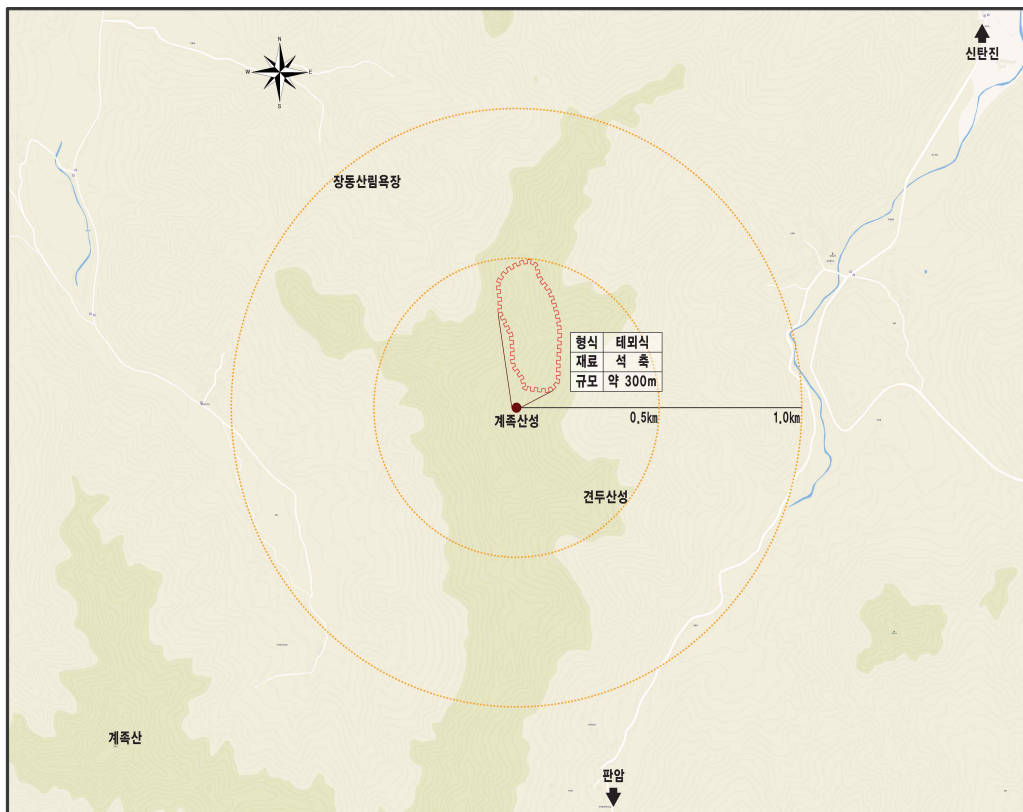
## 제2절 권역별 산성특성 분석

### 1. 계족산·식장산계 산성

#### 1) 계족산성

- 계족산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산 8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사적 제355호(1991.10.3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국가소유임
- 계족산 정상부에서 북동쪽으로 길게 발달된 능선을 따라 약 1.3km 지점에 있는 봉우리(해발431m)위에 축조되어 있음
  - 산성에 올라서면 동쪽으로는 대청호 건너편으로 충북 옥천군이 북동쪽으로는 충북 보은군 지역이 바라다 보임
- 성의 둘레는 약 1,037m로 대전지역에 소재한 산성중에 가장 규모가 큰 테피식 석축산성이며, 성내의 지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의 형상을 하고 있음
  - 성의 축조 방식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 매우 견고하게 축조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자연석을 이용한 내탁기법에 의한 방식으로, 서벽, 동벽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또 하나의 축조 방식은 협축비법인데 동벽 및 북벽, 서벽과 남벽 일부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성내에는 6개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북벽을 제외한 남, 서, 동벽에 문지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성내에는 2개소의 우물지가 발견되었고, 남문지에서 약 7m가량 북쪽에 있는 봉우리에 봉수대 그리고 저수지가 있었음
- 성내의 건물지, 봉수대, 저수지 등을 발굴 조사한 결과 기와편, 토기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청자, 분청사기, 백자편 등이 출토되어 이 유적이 오랜 기간 동안 산성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역사적으로 계족산성은 회덕이 우술군에 소속된 이래로 백제의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성은 백제가 망한 직후에도 백제부흥군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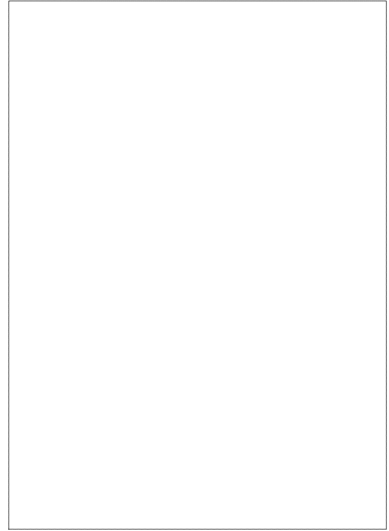
-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당시 백제부흥군의 요충지인 용산성과 우술성을 함락시키는 기록이 있으며, 용산성과 우술성은 같은 시기에 함락되고 있으며, 수천 명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용산성 전투에 참여한 품일 장군은 우술성 공격 시에도 지휘를 맡아 백제군 1천명을 사살하고 달솔, 조복 등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기록에 나타나는 용산성은 계족산성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임
- 당시 전투상황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용산성을 포위한 김유신 장군은 성을 함락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항복하여 목숨을 보전하고 부귀를 기약하라”고 전하였지만 백제 부흥군은 “싸우다 죽일지언정 신라군에게는 항복하지 않겠다”고 하여 임전의지를 다졌고 수천 명이 사살 당한 백제 민초들의 넋이 깃든 중요한 유적임을 알 수 있음





## 2) 계현산성

- 계현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괴동 산 3-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4호(1991.7.1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삼괴동 덕산마을에서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양리로 넘어가는 고개(일명 닭재)의 북쪽 봉우리(해발 325.8m)의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암
  - 이 산성에서 서쪽으로 700m의 거리에는 대전천이 흐르고 있으며, 그 바로 동쪽으로 대전-금산간의 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 이 산성은 대전방면에서 옥천으로 넘어가는 통로인 '닭재'와 대전-금산간의 통로를 감시할 목적으로 축조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 산성의 둘레는 약 220m정도이며, 테피식으로 축조된 석축산성이며, 성체는 대체로 붕괴되었으나, 그 윤곽선은 뚜렷이 확인할 수 있음
  - 남벽은 해발 315m의 능선 상에 축조되었는데 서벽부분은 해발 320m의 능선부분으로 올려져 쌓여있음
  - 북벽(해발 320m선 부분)은 계속 동벽으로 이어지나 중간부분부터 다시 해발 315m 부분으로 축조되어 남과 만나고 있음
  - 남동쪽 성벽부분에는 일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성벽의 높이가 330m 가량 되며, 그 축조방법은 기초 석에서 약 180m 정도는 안으로 약간씩 내경되게 쌓다가 그 위 150cm가량은 거의 수직으로 쌓아 성벽의 단면이 홀형을 이루고 있음
  - 석재는 자연할석을 사용하여 외면을 맞추어 쌓았다. 북동쪽 성벽부분도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외벽고 420cm, 내벽고 80cm, 성벽의 상부 폭이 450cm가량 됨
- 산성 안에는 남벽부분에 폭이 약 6m~8m 정도인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여 지는 토기 편과 기와 편을 수습할 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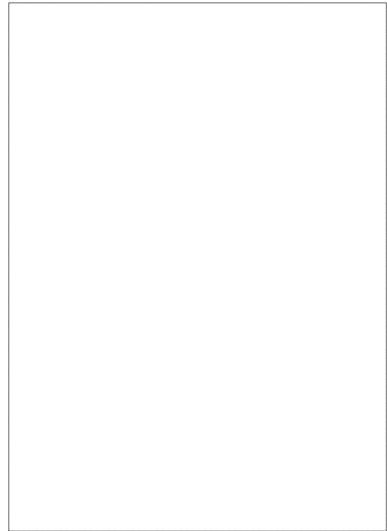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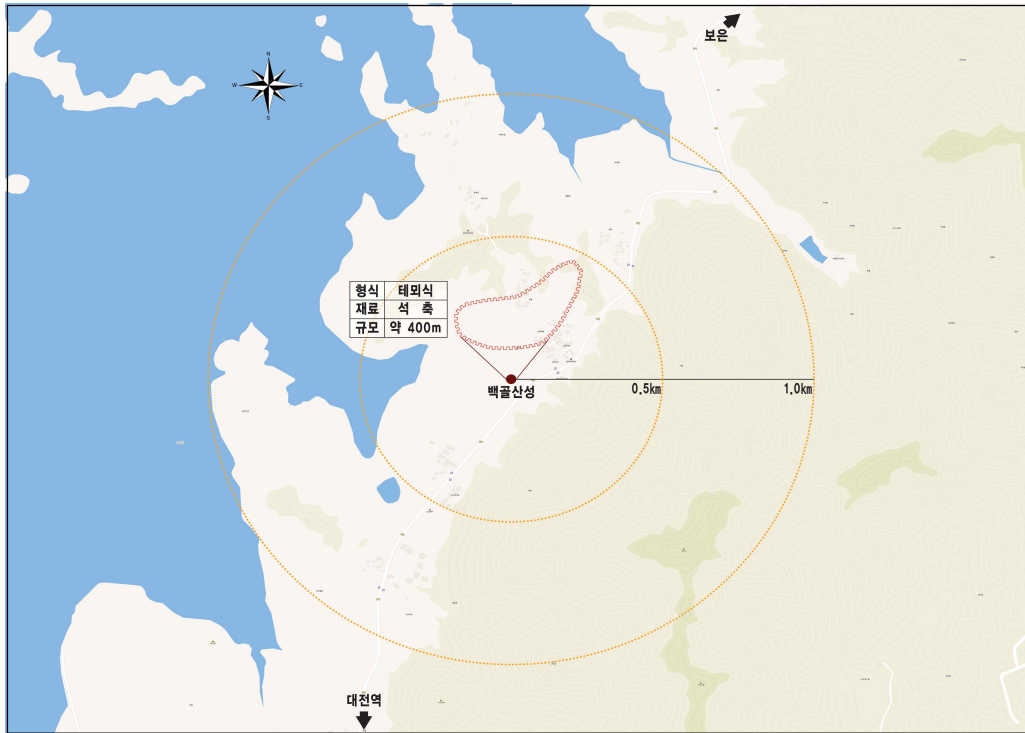
- 건물지가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또한 성안의 북쪽 부분에 치우쳐 형성된 정상부에는 인공에 의해 축조된 부분이 일부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는 시계가 양호하여 장대지로 추측되고 있음
- 남쪽 성벽쪽에 가까이 위치하여 동문지가 시설되어 있어 '닭재'로 통하고 있으며, 북쪽성벽 부분에도 성벽이 함몰된 부분이 있어 문지가 있었음을 추정케 해줌



### 3) 백골산성

- 백골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신하동 산 13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2호(1991.7.1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대전관내의 산성으로는 유일하게 1차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는 금강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백골산의 정상부(해발 340m)에 테뢰식으로 쌓은 석축산성임
  - 백골산은 대단히 험한 산세를 갖추고 있는데 오르는 길은 신하동쪽에서 계곡을 따라 동북쪽으로 오르게 됨
- 서쪽으로는 백제 측의 전략적 거점인 계족산성과 동쪽으로는 신라 측의 유명한 환산성과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됨을 알 수 있음
  - 또한 백골산이라는 명칭에서도 시사하듯 이 산성을 사이에 두고 삼국시대에 백제군과 신라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음을 짐작케 함
- 성벽은 지형에 따라 축조되어 있는데 그 둘레는 약 400m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성벽이 가파른 지형에 축조된 관계로 거의 무너져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원상을 확인하기가 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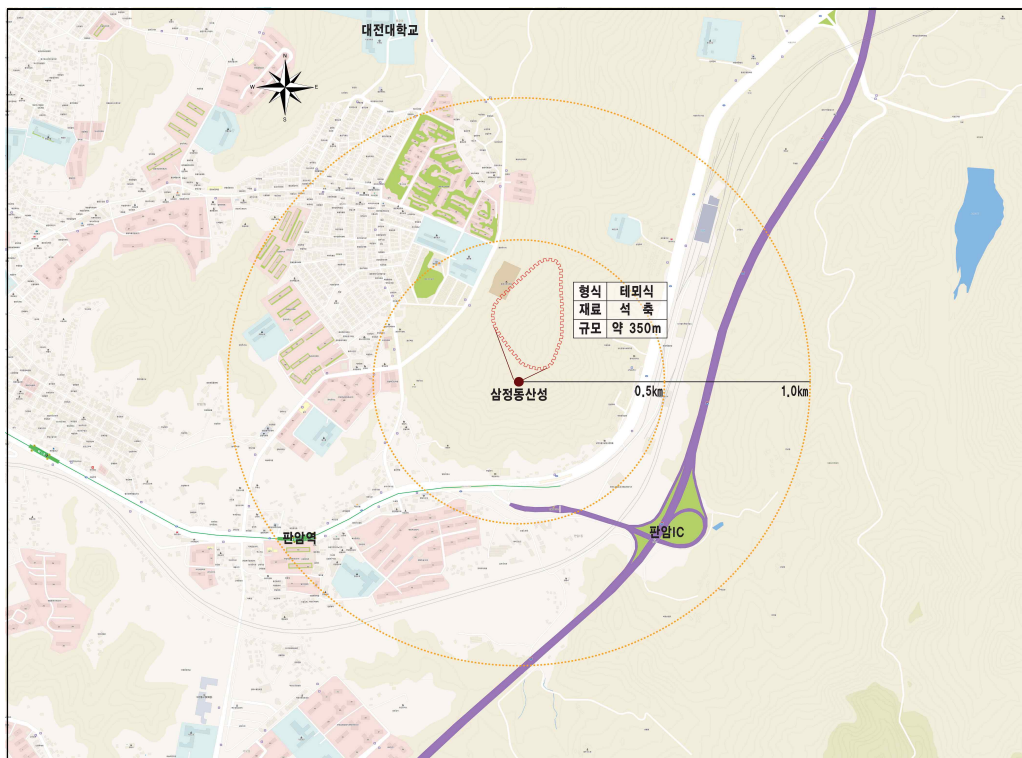
[그림 3-5] 백골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 삼정동산성

- 삼정동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관망동 산 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7호(1990.5.2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용운동 주공아파트의 동남쪽인 해발 240m의 산 정상에 테를 두르듯 돌을 쌓아 만든 성으로, 성의 평면 모양은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둘레가 약 350m인 비교적 작은 성임
- 성벽은 대부분 허물어져 원래의 모습을 추정하기 어렵고, 남벽 일부에 안팎으로 돌을 쌓은 협축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곳에서의 성벽 폭은 5.2m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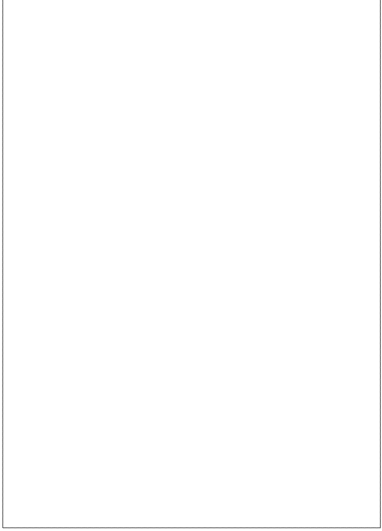
## 산성의 도시 대전에 관한 기초연구

- 산 능선이 지나는 동북쪽과 서남쪽의 성벽에 있는 각각  $4.5\text{m} \times 5.7\text{m}$ ,  $7\text{m} \times 4.3\text{m}$  정도의 네모난 돌출부가 있는데, 성의 취약지점에 설치되는 치성으로 보여지며 서벽에 가까운 산 정상부에 건물터로 보이는 평탄한 곳이 있음
- 성안에서는 백제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 조각이 출토되기도 하였으며, 산성에서 남동쪽으로 50m 거리에 돌로 쌓아 만든 원형 평면의 시설이 있는데 보로 추정되며 옥천 쪽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하여 쌓은 것으로 추정됨



[그림 3-6] 삼정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5) 갈현성

- 갈현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 9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2호(1990.5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용운동에서 세천동으로 넘어가는 갈고개 북쪽에 있는 해발 263m의 산 정상부에 축조된 테피형 석축산성으로 성 둘레는 약 350m임
    -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세월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린 성벽이 테를 이루어 테피식 산성의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함
  - 성벽은 동쪽에 높이 2m 가량만 남아 있고 네모난 돌로 앞면을 맞추어 쌓았음
  - 한편 서쪽 성벽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활용하여 전체적으로 성벽을 쌓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만 성벽을 쌓았음
    - 성의 평면 형태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문터는 남문 터가 남아 있는데 문 폭은 4.8m 정도임
  - 정상부의 중앙에는 폭 4m 정도 되는 움푹 파인 흔적과 군데군데 돌로 쌓은 듯한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장시설과 관련된 유적으로 짐작되며, 성내 곳곳에서 삼국시대의 토기 편과 기와 편을 찾아볼 수 있어 성의 사용연대를 알 수 있게 해줌
- 



[그림 3-7] 갈현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6) 능성

- 능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산 1-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1호(1990.5.2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가양동, 자양동에서 비룡동 비름들 마을로 넘어가는 비름들 고개 위에 위치하고 있음
  - 해발 310m의 산 정상부에 축조된 테피식 석축 산성으로 성 둘레는 300m가량 되지만 성벽의 대부분은 무너져 내려 원래의 모습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문터는 동문 터와 남문 터가 있고, 동문 터는 폭 5.1m, 성벽의 두께 3.4m이고, 남문 터는 폭 3m, 성벽의 두께 5.3m 가량임
- 한편 동쪽 성벽과 남쪽 성벽에는 성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치성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어 주목되며, 특히 동문 터 남쪽에 남아 있는 치성은 성벽 높이가 3.7m가까이 남아 있어 성의 축조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줌
  - 암반 위의 자연경사면을 따라 처음 1m가량은 수직으로 쌓다가 급히 안쪽으로 경사를 주어 오르려 쌓은 후 다시 수직으로 쌓았음
  - 성 둘은 앞부분으로 약간 가공한 네모난 돌을 사용하였으며, 이 부분의 치성은 밖으로 5m가량 내어 쌓았는데 그 폭은 5.5m 이며, 이러한 형태의 치성은 동문 터 북쪽에서도 그 흔적이 남아 있음
- 성안에서 별다른 시설물을 찾아볼 수 없으나, 성내 곳곳에서 삼국시대의 토기 편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 산성을 쌓은 목적은 동쪽 성벽부분에 남아 있는 치성의 흔적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동쪽 방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였던 것으로 짐작됨
  - 능성은 가양동 우암 사적공원 쪽에서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고, 대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함
  - 정면으로 보이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와 좌우로 식장산 보문산 계족산성, 그리고 멀리 계룡산 줄기까지 그야말로 대전이 한 장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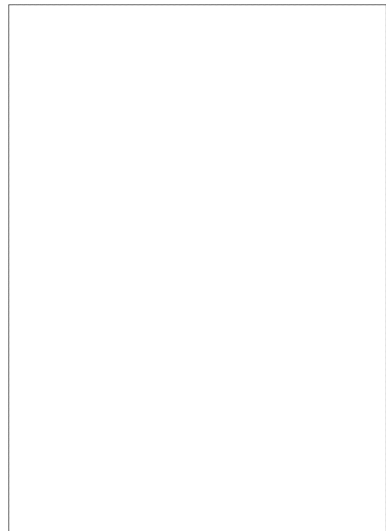




[그림 3-8] 능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7) 고봉산성

- 고봉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산동 산 19-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1호(1991.7.1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질현성에서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해발 304m의 고봉산이 있고, 성은 이 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으며, 테피식 석축산성인데 성 둘레는 약 250m임
  - 산성의 평면 형태는 타원형이며, 성벽은 거의 허물어져 윤곽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서벽에서 3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을 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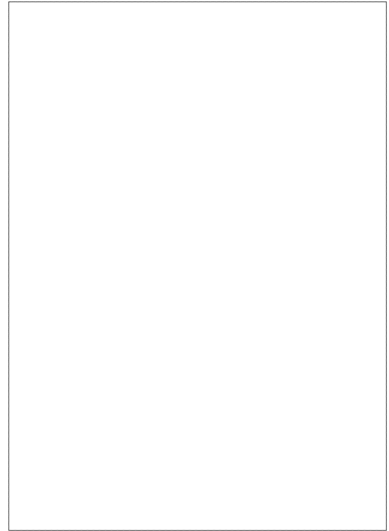
- 성의 동북쪽 조망바위에서의 대청호 조망이 멋진 이 산성은 남쪽의 질티재가 잘 보이는 지점으로서, 이 고개로 통행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질현성과 인접하여 있는 것은 이 산성이 질현성의 자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그림 3-9] 고봉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8) 질현성

- 질현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산 31-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8호(1989.3.1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가양동 더퍼리에서 동구 추동으로 넘어가는 '질터재' 북쪽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성 둘레는 800m 정도이며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성을 쌓은 수법은 내탁이나, 동벽의 일부에서는 협축 한 곳도 있음
  - 협축한 부분의 성벽 안쪽 높이는 1.5m이고, 바깥 쪽은 3~4m에 달함
- 성벽을 쌓은 돌은 모서리를 가공한 네모난 돌로 면을 맞추어 아래에서부터 약간씩 안으로 들여쌓으면서 군데군데 조그만 돌로서 췌기를 박은 흔적도 볼 수 있으며, 현재 북쪽의 성벽이 가장 잘 남아 있는데, 천년 이상의 세월을 넘어 감동적임
- 문터의 흔적은 동, 서, 남벽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남문 터는 성으로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 문 폭은 3.8m 정도임
  - 남문 터의 동쪽 200m되는 곳에 수구로 생각되는 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특별한 시설은 남아 있지 않으나 주변 10m정도가 항상 습기가 많음
  - 아마도 성내에서 흘러드는 물의 속도를 줄여 성벽을 보호하기 위한 못을 팠던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 또한 동문 터는 추동으로 연결되는 통로였고, 서문 터는 가양동으로 가는 길이 있으며, 문 폭은 3.5m 정도로 추정됨
- 이 질현성은 백제부흥운동군의 거점 중의 하나였던 지라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성을 중심으로 북쪽 능선상의 6개의 성보는 이 성을 보완할 목적으로 쌓았던 것으로 짐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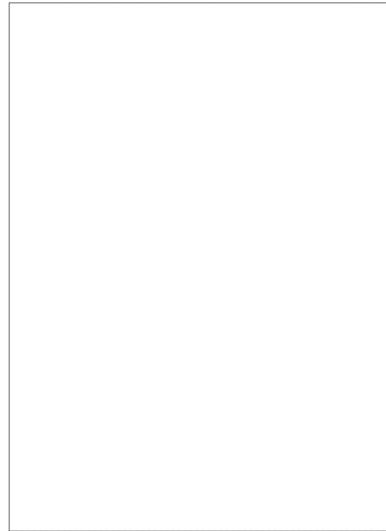




[그림 3-10] 질현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9) 견두산성

- 견두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효평동 산 83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0호(1991.7.1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견두산성은 계족산성에서 동남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해발 363m인 개머리산에 테피식으로 쌓은 성임
  - 성 둘레는 280m정도로 자연암반을 이용하면서 잡석으로 구축하였는데, 남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벽의 대부분이 무너져 내려 현재를 그 윤곽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임
  - 성의 동쪽 부분에는 지름 6m 정도를 높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곳에 장대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됨
- 견두산성 바로 밑으로 신탄진-옥천간의 도로가 동쪽과 북쪽의 띠를 두르듯 휘감고 지나가고 있으며, 성의 동쪽으로는 대청호가 내려다보임
  - 견두산성은 이러한 도로와 수로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계족산성의 자성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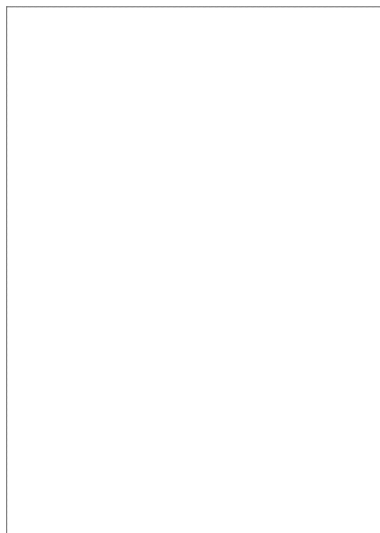




[그림 3-11] 건두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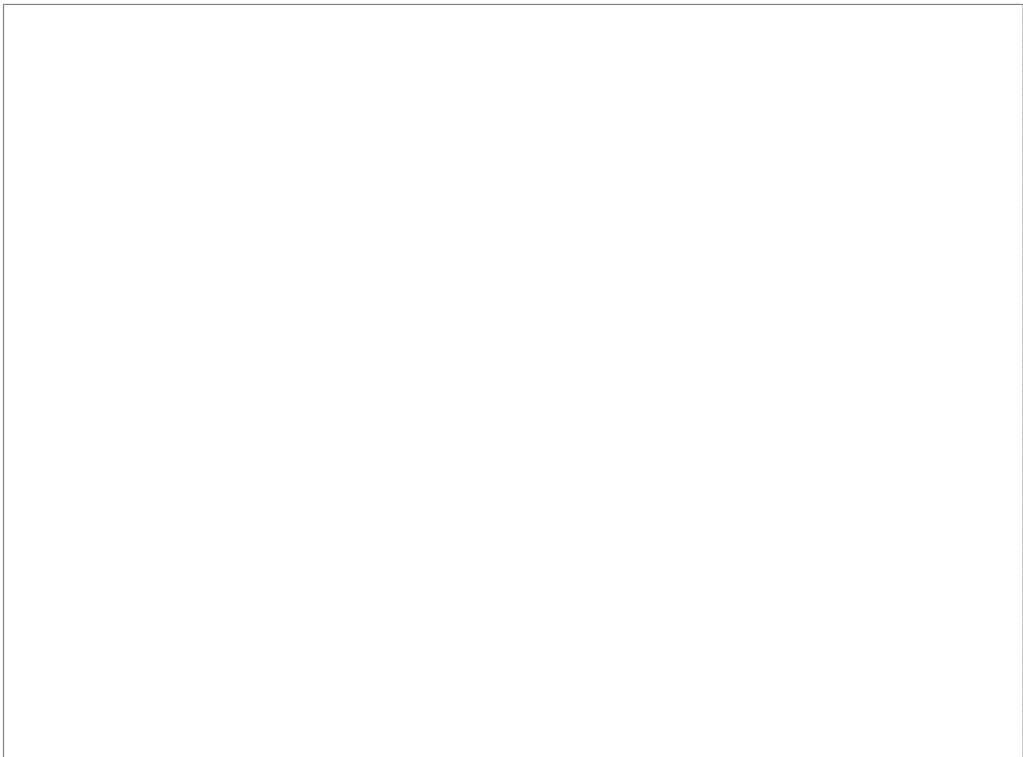
### 11) 이현동산성

- 이현동산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산 38 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1호 (1993.6.21)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이현동산성은 계족산성에서 동북쪽으로 약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산성은 남북방향의 봉우리 두 개를 중심으로 말안장 모양으로 이루어진 지형에 테를 두르듯 돌을 쌓아 만든 성임
- 성의 둘레는 300m 정도이며, 성벽은 안쪽 경사면을 깎아내고 바깥쪽에만 돌을 쌓는 수법을 사




용하였는데 성벽 대부분은 무너져 내렸음

- 남벽의 일부에서 높이 1.2m의 성벽이 남아 있고, 이곳에서의 성벽 축조는 계족산성의 성돌과 유사한 편암계의 돌을 가지고 쌓았는데, 성벽을 약간씩 안쪽으로 물려서 쌓았으나 축조방법은 다소 조잡함
- 북변은 바깥쪽 능선이 완만하여 석루를 높이 쌓아 취약점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석루 끝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흙을 파내어 해자를 만들었음
  - 성돌은 계족산성의 것과 비슷한 재질을 사용하여 쌓았는데, 쌓는 방식은 일정한 규칙성이 없음
- 성내 시설로는 동벽과 서벽 사이의 평탄한 곳에 있는 건물터와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에 창고나 봉수대로 추정되는 둥근 모양의 구덩이가 있음



## 2. 금강수계의 산정

### 1) 마산동산성

- 마산동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마산동 산 6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30호(1993.6.21)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국가 소유임
  - 마산동산성은 추동 말미마을의 동쪽에 회덕황씨 재실이 있고, 이곳에서 동북쪽으로 접하여 있는 해발 220m의 산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테피식 석축산성임
    - 성 둘레는 200m 정도이며, 성벽은 무너져 내려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남쪽 성벽 일부가 잘 남아 있음
  - 마산동산성에서 관찰된 성벽의 축조방법은 성돌을 약간씩 안쪽으로 물려 쌓았고, 현재 9단 140cm정도가 남아 있음
    - 동북쪽 성벽의 한층 높은 부분에는 무너진 석축 시설이 있는데 폭 4m, 높이 2m정도이다. 장대 시설로 추측됨
    - 서남쪽 성벽의 무서리 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무너진 석축시설이 있으며, 서남쪽으로 발달된 능선부에 해당되고 있어 취약지점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로 이해됨.
    - 마산동산성 서북방향으로 노고성과, 서남쪽으로는 계족산성과 연결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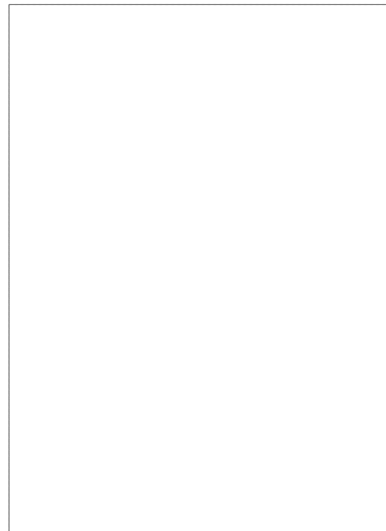




[그림 3-13] 마산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 노고산성

- 노고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산 43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9호(1991.7.1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노고산성은 피골마을의 뒷산인 해발 250m의 산 정상에 위치하며, 성 둘레는 300m 정도로 남북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음
  - 산 정상부분에 테피식으로 축조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 내부 면적은 좁으며, 성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그 윤곽석만 확인할 수 있으나, 서벽과 남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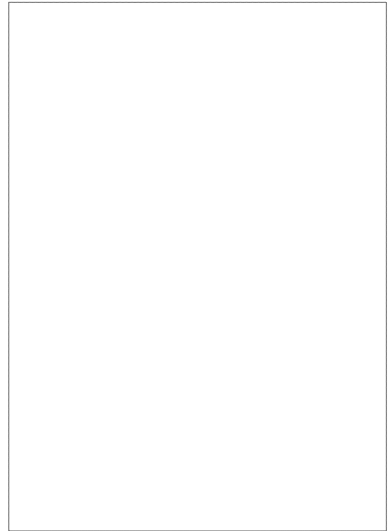
- 성벽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남벽의 일부는 거친 성돌을 사용하여 조잡하게 성벽을 쌓았음
- 노고산성내에는 할매바위가 파골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바위 서쪽 편으로 방아 찧는 시설로 짐작되는 돌이 남아있기도 함
- 남쪽으로는 계족산성과 바로 연결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대청호가 내려다보이고, 동쪽으로는 대청호가 내려다보이고 또한 옥천-문의간 도로가 내려다볼 수 있으며, 문터는 남벽에서만 확인될 뿐이며, 그 폭은 2.3m임
- 노고산성은 계족산성의 전초기지로서 금강의 수로와 옥천-문의간 도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됨



[그림 3-14] 노고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 성치산성

- 성치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산 4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9호(1993.6.21)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국가 소유임
- 성치산성은 계족산성에서 북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해발 210m 성치산 정상부에 있는 테피식 석축산성임
  - 산성의 평면 형태는 긴 타원형의 모습인데 성 둘레는 160m에 불과함
- 성치산성의 성벽은 대체로 해발 210m의 등고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거의 다 허물어져 원래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임
  - 서쪽 성벽부분은 완전히 붕괴되어 성벽의 통과선 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임
  - 동북쪽 성벽에서 남쪽성벽에 이르는 부분은 일부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축조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성치산성의 축조방법은 내외 협축이었음을 알 수 있고, 즉 바깥성벽의 높이는 2.4m 이고, 안쪽에는 1~2단의 석축이 확인되며, 성벽의 폭은 4.3m이다. 성벽은 반듯하고 납작한 돌의 앞면을 맞추어 가로 쌓기로 축조하였고, 돌의 크기는 50cm×20cm내외이다. 성안의 시설물로는 남문 터가 남아 있음
  - 서남쪽의 능선을 방어하기 위하여 석루를 높게 쌓고 그 옆으로 3m폭의 문을 만들었음
  - 중심부에는 한단 높은 작은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장대가 있었던 흔적으로 생각되며, 봉우리 중앙에 지름 6.2m가량 움푹 들어간 시설이 있는데, 이는 봉수나 저장시설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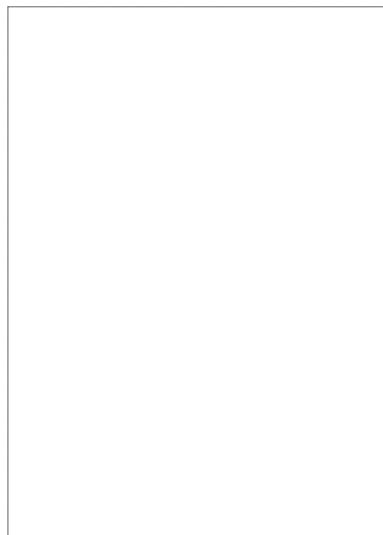




[그림 3-15] 성치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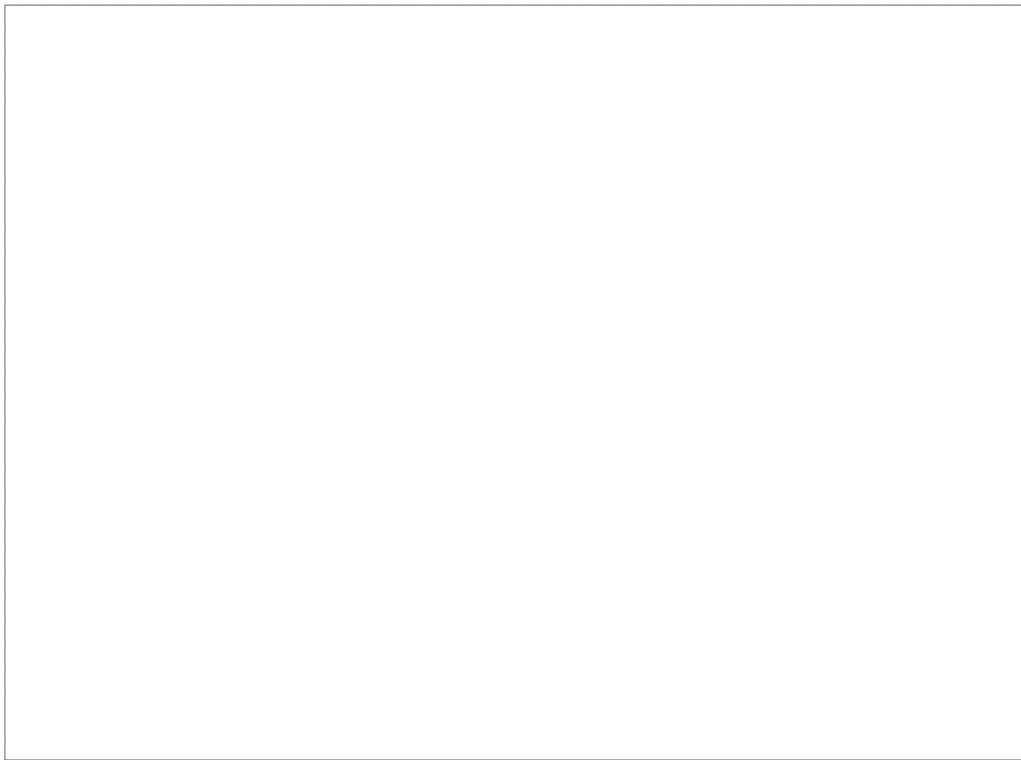
#### 4) 소문산성

- 소문산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산 13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3호(1991.7.1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국가 소유임
- 소문산성은 신동 녹골마을의 북쪽 해발 200m의 산정상부에 있는 산성으로 성벽의 둘레는 350m이며, 산은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성의 평면은 거의 원형에 가깝고, 테피식 산성 중에서는 비교적 작은 규모에 속함



산성의 도시 대전에 관한 기초연구

- 소문산성은 성벽이 통과하는 지점은 안쪽에 5~10m의 평탄한 지형이 있고, 성벽 바깥 높이는 5m 내외로 추정됨
- 소문산성 동쪽 벽과 남쪽 벽의 허물어진 곳을 보면 1~4단의 석축 아래가 순수한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원래의 성벽은 흙으로 쌓은 토축이고 후대에 돌로 쌓은 것임을 알 수 있음
- 소문산성의 폭 4m의 남문 터와 폭 3m의 동문 터가 남아 있으며, 성 안에는 건물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다만 동쪽 벽 가까운 곳에 지름 3m의 우물터가 한 곳 있음



[그림 3-16] 소문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 보문산계의 산정

#### 1) 비파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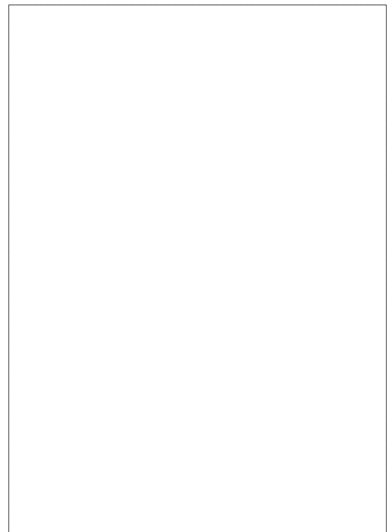
- 비파산성은 대전광역시 동구 이사동 산 18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25호(1991.7.10)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국가 소유임
- 비파산성은 금산방면인 대전시 소호동에서 대별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비파치“라는 고개를 넘어야 하며, 이 고개의 서쪽 표고 300m의 산 정상부에 산성이 위치하고 있음
  - 비파산성에서는 북북서로 보문산성과 서로 대응하고 있으며, 북북동으로는 능성, 갈현성, 삼정동산성 등과 서로 연결되고 있음
  - 비파산성의 축조목적은 대전에서 마전, 금산방면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기 위한 것임
-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성의 둘레는 약 350m이며, 성벽은 화강암 계통의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내탁하여 외축하였는데 대부분이 붕괴되어 그 윤곽석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임
  - 나벽에서 40cm×30cm, 40cm×18cm, 22cm×20cm 크기의 석재로 5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 있는데, 그 높이는 1.1m이었으며 복원하면 5.6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문지는 서문지가 있는데 북벽에 붙여서 시설되어 있으며 문 폭은 3.2m이었으며, 북벽 내 중앙에는 원형으로 이루어진 직경 3.5m의 함몰된 부분이 있는데 봉수시설로 추측됨
  - 봉수지 바로 남쪽으로 17.5m×11.4m 규모의 평평한 고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민묘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는 평행선 문의 토기 편과 선조문 및 격자문의 와편들이 수습되어 건물지로 추정됨



[그림 3-17] 비파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 보문산성

- 보문산성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동 산 3-45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0호(1989.3.1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국가 소유임
- 보문산성은 대전광역시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보문산의 지봉(표고 406m)에 테피식으로 축조된 석축산성으로 표고 457.3m로 정상부가 동쪽으로 돌출되어 시계가 양호한 편임
- 보문산성의 평면은 동남-북서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긴 타원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형은 동고서저의 형태를 하고 있음



- 산성의 복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대지에서는 동쪽으로 계족산-식장산계열의 산성들이 관측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소호동산성(비파산성)과 연결됨
- 보문산성은 대전광역시의 복원, 정비 계획에 따라 1990년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윤무병교수를 비롯한 조사단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이를 토대로 정비가 이루어졌음
-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성 주위는 수평길이로 280m이며, 성체는 대부분 화강암계의 자연할석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나 동북벽의 급경사면은 자연 지세를 그대로 이용하여 석축하지 않았음
- 동벽의 잘 남아 있는 부분은 층수 13단에 250cm의 높이를 나타내며 기초석으로부터 4단은 외면을 수직으로 축조하였으나 5단부터는 조금씩 물러 쌓아 규형을 이루고 있음
  - 또한 적심에서 성벽의 최장 폭은 5.4m이며, 성밖의 기저에는 성벽에 붙여 폭 30~80cm정도의 구획에 납작한 석재를 깔았는데 이것은 성벽 위로 넘쳐흐르는 수량으로 인하여 기초부분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됨
- 동남벽은 산 능선의 연결선상에 있는 관계로 총길이 45m를 협축하였는데, 그 폭은 7m이다. 성내 외벽의 지반 차이는 1.3m에 이르며, 내벽은 5단의 층수에 높이 93cm임
  - 동남벽 밖에는 외황(성벽 밖에 둘러 판 물 없는 도랑)을 설치하여 방어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 산성에서 성벽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은 서남벽으로 16단의 층수에 3.42m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음
- 보문산성의 문지는 서문지와 남문지가 있으며, 서문지는 이 산성의 주된 출입문으로 북벽에 붙여서 설치하였고, 서문지를 이루는 남벽과 북벽은 암반 위에 내외협축하여 육축하였는데, 북벽의 상부 폭은 7.5m이며, 남벽의 기저부 폭은 6.9m이고 상부 폭은 6.2m이었음
  - 서문지 남벽의 현재 높이는 층수 8단에 1.8m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남벽과 북벽 사이의 문 폭은 넓은 곳이 5.5m, 좁은 곳이 4.5m인데 후대에 이 문 폭을 1.4m로 좁혀서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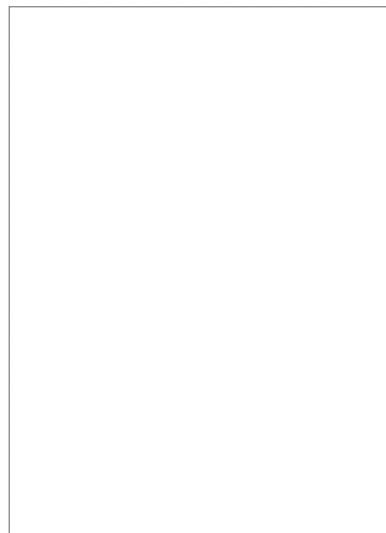
- 서문지의 특징은 고대의 웅성 형태로 문을 들어서면 현고 1.1m의 암벽이 진로를 차단하며 북벽의 내벽이 이 암반과 연결되어 있어, 문지의 우측인 남쪽 통로로 우회하여 진입하도록 시설하였음
- 문지의 외벽에서 암벽까지의 거리는 8.6m이며, 그 고저 차는 2.27m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 통로에서 차단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음
- 남문지는 남동벽의 협축 성벽이 끝나는 지점에 시설되어 있으며, 협축 부분의 끝단인 문지의 동벽은 풍화암반을 50cm정도 파내고 기초석을 놓았으며 3단까지는 수직으로 석축하고 4단부터는 물려 쌓았는데 현재 층수 6단에 1.3m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음
- 남문지 동벽의 상부 폭은 6.6m로, 남동벽의 다른 협축 부위보다 1m이상 두텁게 석축하였으며, 남문지는 개거식 평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후대에 이 문지를 자연석과 산토로 폐쇄시켜 놓았음
- 남문지의 문 폭은 5.8m로 남문지보다 조금 넓은 편인데 이 문지의 외곽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음
- 성내에는 별다른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조문의 백제시대 와편과 어골문의 고려시대 와편을 수습할 수 있음
-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장대지에서는 계족산-식장산을 연결하는 산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들과 서로 연결되고 있어 전략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임을 알 수 있음



[그림 3-18] 보문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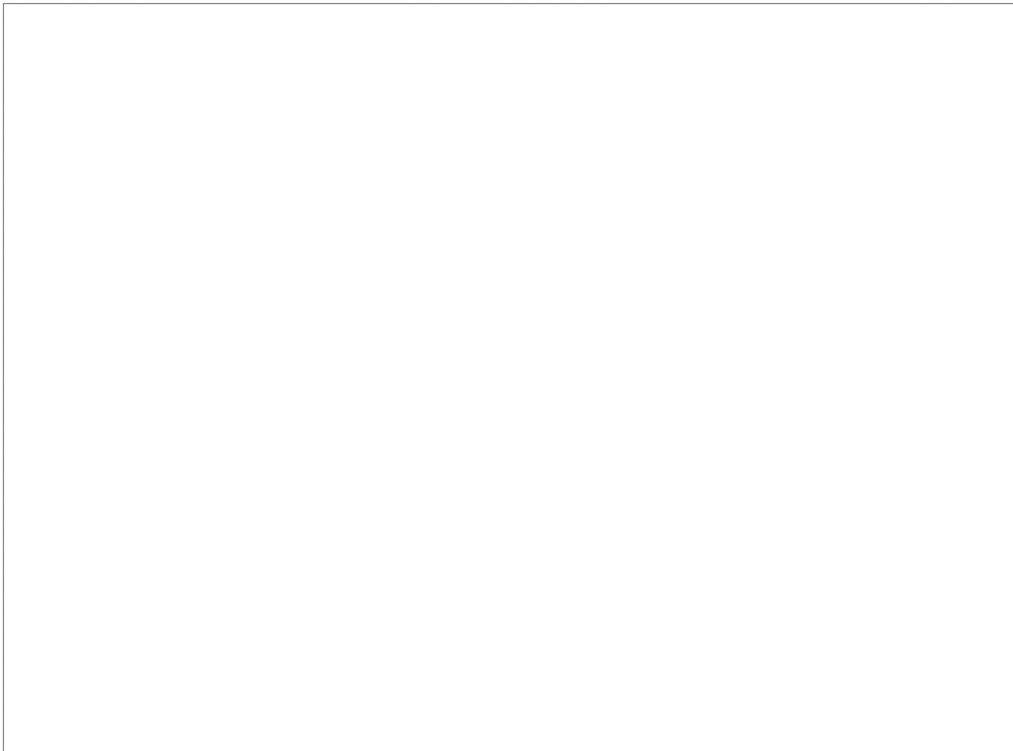
### 3) 사정성

- 사정성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 62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4호(1990.5.2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사정성은 보문산 사정공원 입구의 서쪽 해발 160m의 산위에 축조되어 있는 테피식 석축산성이며, 둘레 약 350m의 성벽은 전부 허물어졌고, 현재는 그 윤곽만 확인할 수 있음
  - 성안은 서쪽으로 향하여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동남쪽 높은 곳에 건물터가 있음



## 산성의 도시 대전에 관한 기초연구

- 대전에서 진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하여 쌓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남쪽으로는 흑석동산성과 북쪽으로는 월평동산성과 연결되고 있으며, 대전 동쪽의 산성들 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함
- 삼국사기에 나오는 사정책이 사정성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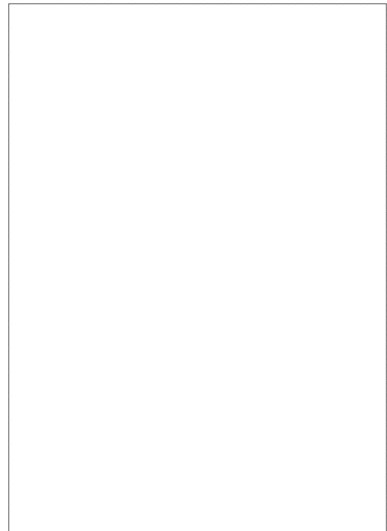


[그림 3-19] 사정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4. 갑천수계의 산정

### 1) 흑석동산성

- 흑석동산성은 대전광역시 서구 봉곡동 산 26-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5호(1990.5.2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국가 소유임
- 흑석동산성은 흑석동역의 서쪽에 있는 해발 1976m의 고무래봉 정상부에 축조된 산성으로, 성 둘레가 470m에 달하는 테피식 석축산성이며, 성벽은 거의 붕괴되었으나 윤곽은 뚜렷이 남아 있음
- 남벽은 해발 185m의 능선 상에 축조되었는데, 서쪽 성벽 쪽으로 점차 내려가 해발 175m부분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해발 180m부분에 이르러 꺾어져 북쪽 성벽을 구축하였음
  - 북쪽 성벽은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가 해발 195m의 정상까지 이르렀으며, 여기서 거의 수직으로 꺾어져 이루어진 동쪽 성벽은 해발 185m부분까지 내려와 남쪽 성벽과 접하고 있음
  - 북쪽 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성벽의 안쪽에는 폭 6~9m 가량의 평탄한 지형이 있어 건물터였다고 추정됨
- 이곳에서 백제시대의 뚜껑접시를 비롯한 많은 토기 편들이 흩어져 있고, 기와 편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성벽은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거의 붕괴되었지만 동쪽 성벽에서 윗부분의 폭이 5.2m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터는 남문 터만 남아 있고 그 폭은 2.8m 정도이며, 흑석동산성은 남쪽을 제외한 주변이 하천으로 둘러져 있어 대전에서 연산에 이르는 길목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쌓여졌다고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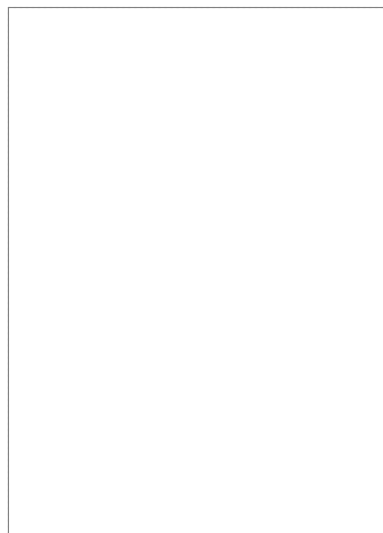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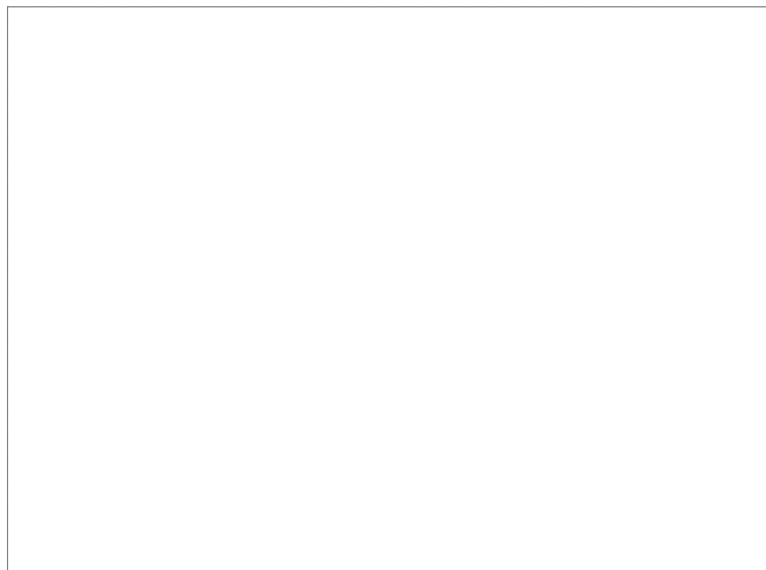
[그림 3-20] 흑석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2) 월평동산성

- 월평동산성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산 12-2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1989.3.1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월평동산성은 대전에서 유성으로 통하는 만년교 남쪽 표고 137.8m의 산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성 내의 지형은 남고북저의 형태를 하고 있음
  - 산성의 서쪽은 갑천의 지류인 성천에 임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바로 대전-공주간 도로가 통과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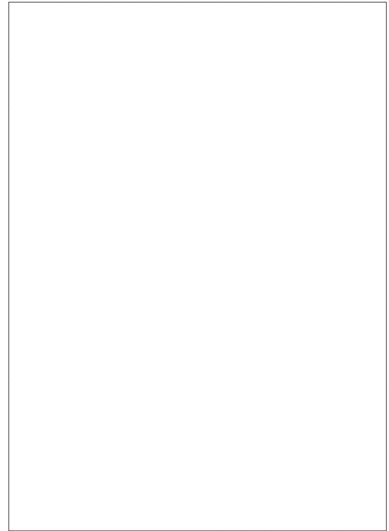


- 월동산성의 둘레는 710m로서 성벽은 거의 붕괴되어 그 원형을 잃고 있으나 그 윤곽 석은 뚜렷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성은 최고봉을 남서 벽의 일부로 삼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였음
  - 성벽의 축조상태를 보면 자연석괴를 외면을 맞추어 축조하였으며 서벽의 일부에 강기된 석루가 있어 내벽고가 1m, 외벽고가 4.3m이며, 성체의 상부폭은 2.2m임
- 문지는 동서북문지가 확인되는데 지금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동문지는 문 폭이 5m로서 갈마동으로 나서게 되고, 서문지는 문 폭이 3.6m로서 나서면 바로 갑천에 임하게 됨
  - 북문 지는 문 폭이 3m로 이 성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성벽이 약간 어긋나 있어 통행하려면 S자 형으로 굽어 들어가야 함
  - 북문지에는 매우 평탄한 곳이 있으며 그 중앙에 천정의 흔적이 보이고 있으며, 부근은 매우 습한 것으로 보아 성내의 빗물을 처리할 집수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월평동산성내에는 너비 7m~12m의 내호로 보이는 통로가 전체에 둘러져 있고, 동서벽의 내부에는 평지가 많아 당시 건물지로 추측되는데 이곳에서 백제시대의 기대편을 비롯하여 경질토 기편을 수습할 수 있어 이 성의 존몰 년대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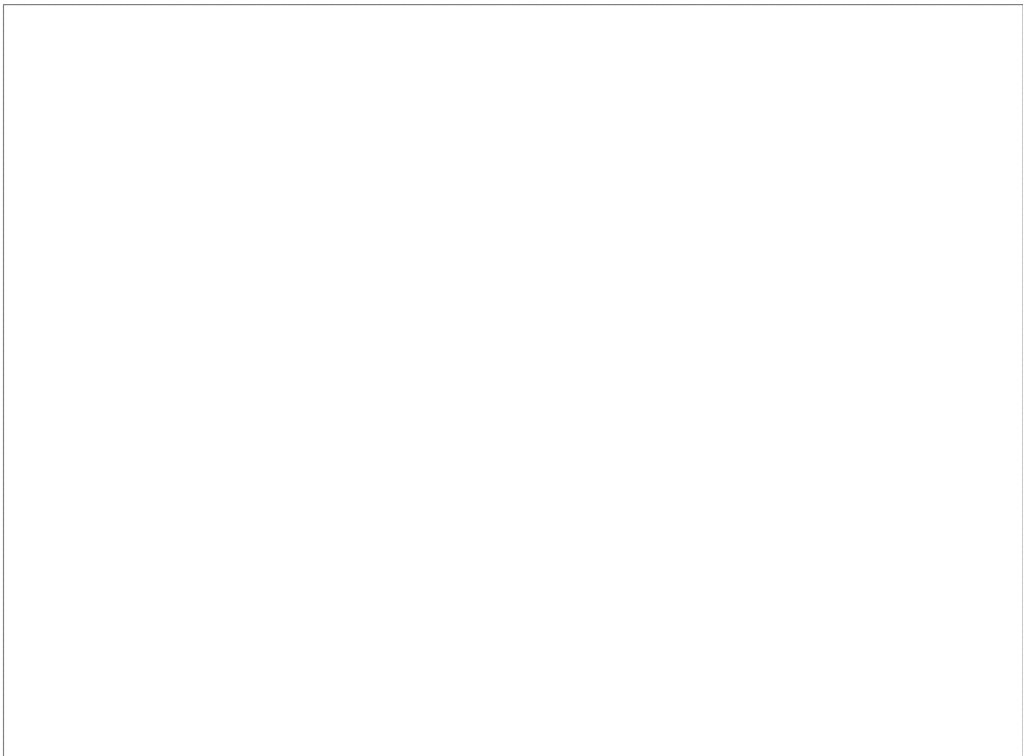


### 3) 구성동산성

- 구성동산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산 4-3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6호(1989.3.1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토축성으로 국가 소유임
- 구성동산성은 대전의 서북쪽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갑천이 월평동산성 부근에 이르러 휘어져 서남에서 동북방으로 흐르는 서북쪽에 펼쳐진 '구어들'이라는 평야의 동쪽에 솟은 표고 86.7m의 성두산 산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칭 구성(거북성)이라 부르기도 함
  - 산성의 남쪽 끝단에서는 시계가 상당히 양호하여 바로 성 밑으로 지나가는 도로와 성천 그리고 넓은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며, 남쪽으로 월평동산성과 연결됨
- 성벽의 축조상태는 삭토에 의한 토축산성으로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붕괴되어 그 윤곽석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내에는 약 8m~10m의 폭으로 내호로 보이는 통로가 둘러져 있는데 이는 성벽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성이라 할 수 있음
- 구성동산성은 크게 성두산의 정상부에 축조한 북성과 남으로 뻗은 산능선을 따라 길쭉하게 축조된 남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 북성의 둘레는 330m로, 서북쪽의 모서리 부분에 성벽이 세로로 파헤쳐 있어 여기에서 성벽의 축조상태를 살필 수 있는데, 성벽은 삭토하여 내부를 넓고 평평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외면이 가파른 성벽을 이루게 하였고 그 위에 다시 판축을 하였는데 현존하는 판축상태를 보면 표토층은 60cm, 점토층 3.5cm, 석비레층 6cm로 점토층과 석비레층을 교차하여 판축하였음
  - 남성의 둘레는 250m로 주성인 북성에 붙여 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성에서의 관측이 용이치 않는 점과 성 밖에 있는 우물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추정됨



- 북성의 문지는 북벽에 시설한 북문지가 있으며 문 폭은 5m이고 내외 고저차는 4m에 이르며, 중앙에는 동서로 길다란 마안형의 고대가 있는데 이 주변에 있던 민묘를 이장시키느라 파헤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동서벽의 내부에 넓은 평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이곳에서 적갈색 및 암회갈색의 연질 토기편을 다수 수습할 수 있음
- 남성의 문지는 북성과의 연결부에 가깝게 동, 서로 나있으며, 남문지는 폭이 2m에 불과하고 밖은 급경사이며, 동쪽의 문지는 내외의 고저차가 별로 없고 좌우에 거의 돌출되다시피 한 성벽으로 보아 가장 중요한 통로인간 추정됨
- 성의 우물지는 모두 성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성 남문지 밖 25m 거리에 하나가 있고 북성 북문지 밖 100m 이내에 2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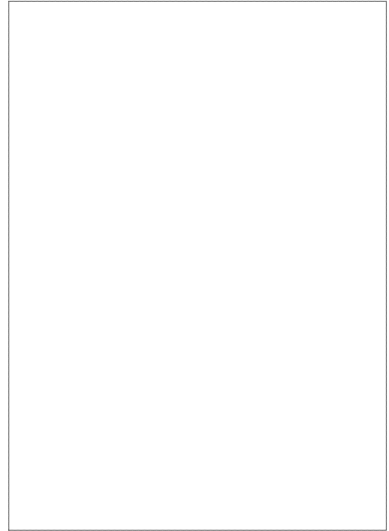


[그림 3-22] 구산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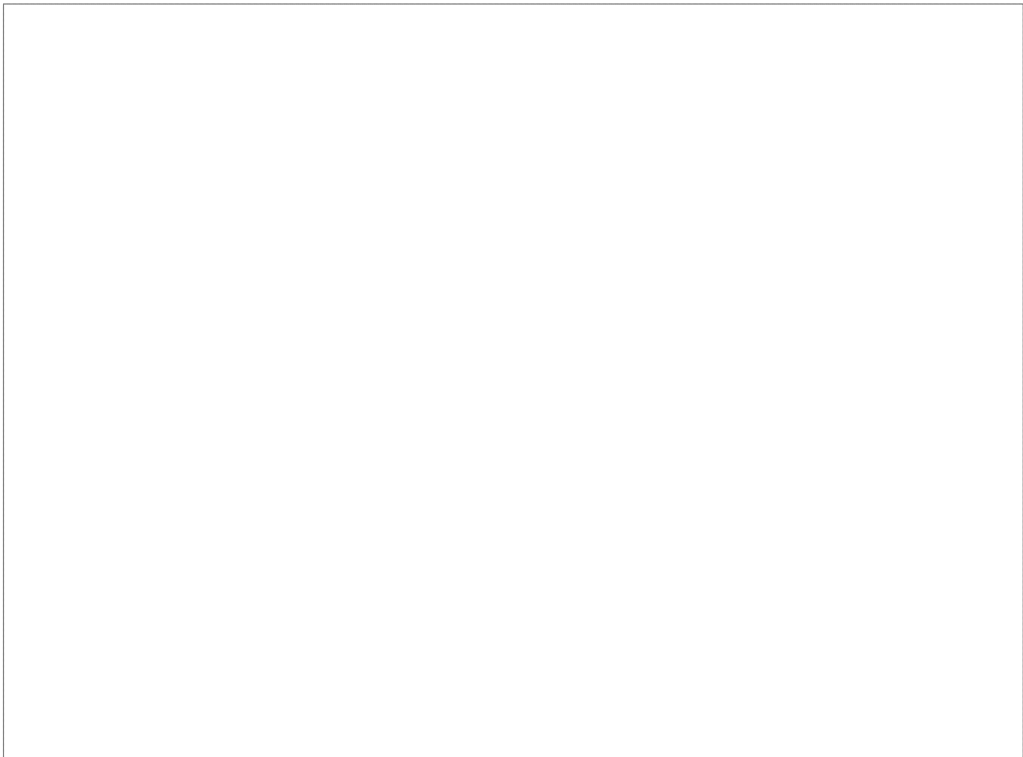


#### 4) 우술성

- 우술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산 19-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9호(1989.3.1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토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우술성은 갑천의 우안에 테피식으로 축조된 토성이며, 최고 처는 해발 145m로 표기되어 있으나 산성의 동쪽 기슭을 통과하는 도로변에서 볼 때에는 불과 60~70m정도의 높이 밖에 되지 않으며 평지에 보다 접근해서 축조된 산성임을 알 수 있음
  - 산성의 평면은 거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북벽은 산 정상부를 감싸는 형식이고 동-서벽은 산능선을 따라 지형을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남벽은 동-서 양능선 사이의 경사면을 가로질러 축조되었음
  - 산성의 동벽 밖에는 대전-천안간 국도와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지나가고 있으며 서벽 밖은 급경사를 이루고 갑천에 이르게 됨
  - 산이 입지한 주변 지리는 남쪽으로 바로 회덕 당산과 마주 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갑천이 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3km상거하여 계족산성이 위치하고 있음
  - 동남향으로는 700m의 근거리에 고 회덕읍내가 바라다 보이고 있음
- 우술성의 주위는 580m에 달하며 현재의 상태로서는 서-북면은 석루가 노출되어 있고 동벽은 토루상을 이루고 있는데 그 외벽의 높이가 2.2m에 달한 부분도 있음
  - 남벽은 토석 혼축의 상태인데 내벽 높이는 2.3m이고, 외벽고는 3.4m이며, 성체의 상부 폭은 1.8m이며, 남벽의 기저부 폭은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그렇겠지만 5.2m에 달하고 있음
- 우술성에서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문지는 남문지와 수구지이며, 남문지의 문 폭은 3.6m 정도로 평탄한 길로 이어지면서 회덕향교가 있는 효자골에 이르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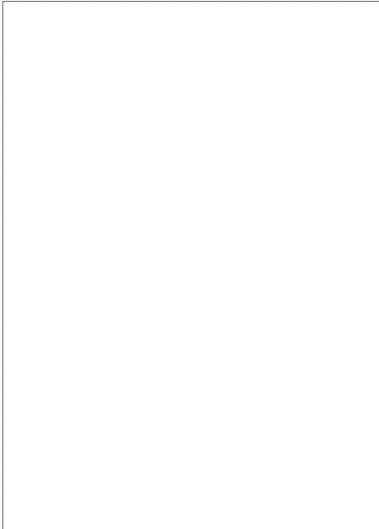
- 남문지로부터 서쪽으로 10m쯤 떨어져서 2m 폭의 수구지가 있는데 성내의 우수가 이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가장 낮은 곳에 시설되어 있었으나 그 구조물은 붕괴되어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 우של성내에서는 우물지를 비롯한 다른 시설물은 발견하기 못하였으며 다만 남문지를 벗어나 70m정도의 거리에 암반으로 된 우물이 있는데 현재에도 계속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 당시 이 산성 내외의 식수원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우물부근의 전답으로 경작되고 있는 평지와 성내에 자리 잡고 있는 묘소들 부근에서 삼국시대의 와편과 토기 편들을 수습할 수 있음



[그림 3-23] 우של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5. 계룡산계의 산성

### 1) 성북동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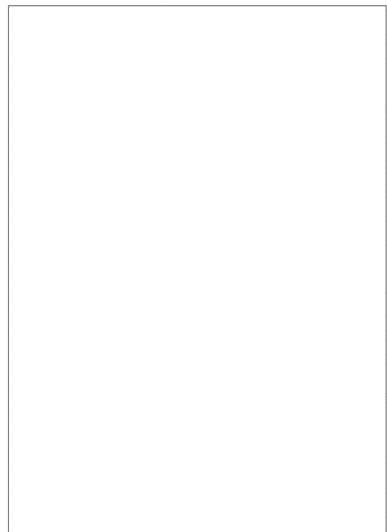
- 성북동산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동 산 20-5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8호(1990.5.2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원내동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남쪽 해발 230m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테피식 석축산성이며, 성의 둘레는 약 450m 정도이나 성벽은 거의 붕괴되었고, 북벽의 일부가 남아있음
  - 문터는 동북 벽의 모서리에 위치하여 산 정상으로 오를 수 있는 곳과 북벽 중앙의 모서리에 위치하여 산 정상으로 오를 수 있는 곳과 북벽 중앙의 한 곳 등 2개소가 있음
    - 동벽과 남벽은 지형을 이용하여 삭토 수법으로 축조한 듯하나 그 형태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파괴됨
  - 성안에는 곳곳에 건물터의 흔적이 있고, 북문 터와 가까운 곳에 우물자리가 있으며, 동쪽으로 대전 동부의 여러 산성들과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
- 



[그림 3-24] 성북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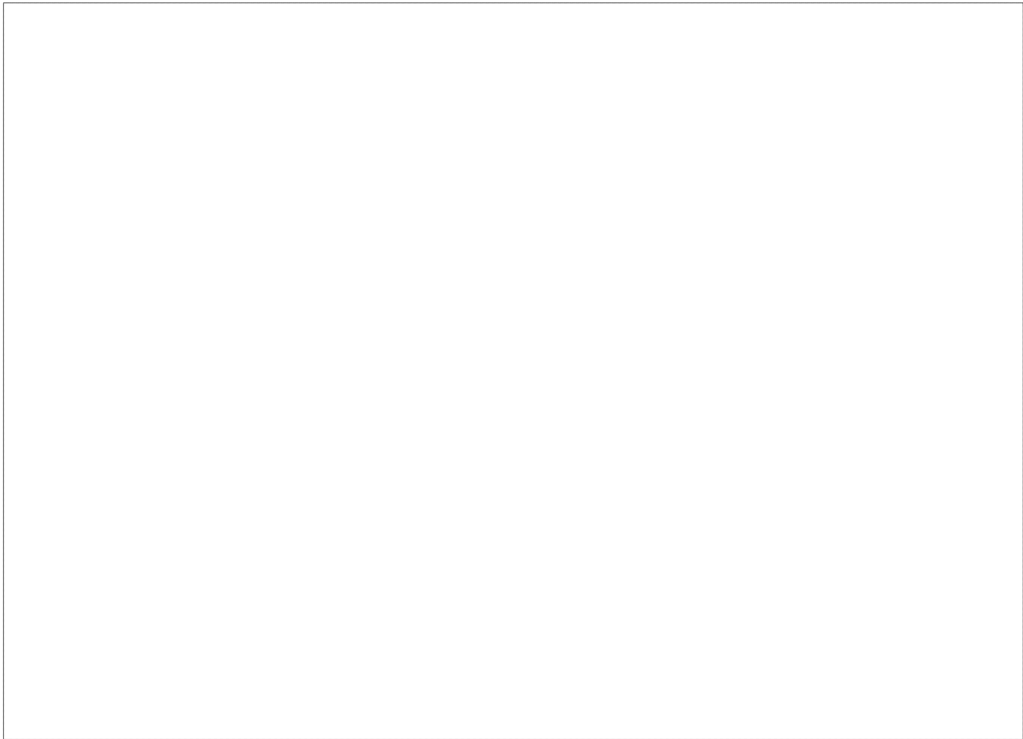
## 2) 안산동산성

- 안산동산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산동 산 40-42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6호(1990.5.2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안산동산성은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가면 안산교가 있는데, 다리의 왼쪽으로 위치한 해발 226m의 산 정상에 산성이 자리 잡고 있음
  - 성 둘레는 약 600~800m로서 지형을 이용하여 내탁 외축하였으며, 성벽 안쪽에 교통호가 일부 남아 있으며, 서벽의 일부에 성벽이 남아 있는데, 안쪽 성벽 높이 1.1m, 바깥 성벽 높이 6.3m임



## 산성의 도시 대전에 관한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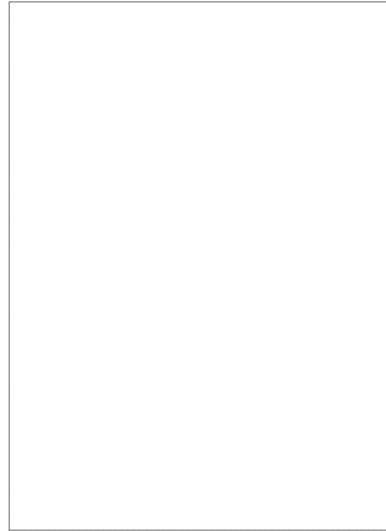
- 성은 3층의 계단모양으로 쌓았는데, 지형에 따라 석축을 돌려 3중의 산성처럼 보인다. 성안의 중앙부에 둘레 100m, 지름 31.7m의 둥글게 쌓은 곳이 있음
  - 시설물은 창고 터로 생각되며 북쪽으로 통로가 나 있으며, 서문터는 상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으며, 서운 폭은 4.9m이고, 성벽 높이는 5m임
- 산성의 서쪽에는 용수천이 흐르고 있으며, 성에서 대전-조치원 도로가 잘 보이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산성으로 유성을 거쳐 공주로 향하는 적군을 방어하기 위한 기능을 하였음



[그림 3-25] 안산동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3) 적오산성

- 적오산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산 19-1번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기념물 제13호(1990.5.28)로 지정 관리되고 있고, 산성의 형태는 석축성으로 민간 소유임
- 적오산성은 북대전(대덕밸리) 나들목 서쪽에 위치한 해발 255.1m의 적오산 정상에 축조된 석축산성으로 덕진산성이라고도 불리어짐
  - 성벽은 산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테피식으로 쌓았고, 성벽은 거의 붕괴되었으나 윤곽은 뚜렷함
  - 성의 평면 형태는 마름모꼴이며 둘레는 730m정도
- 적오산성은 해발 255m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하여 등고선을 따라 축조되어 등고선 230m의 북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에 북문 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성벽은 등고선 210m지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문 터가 있음
  - 성벽은 다시 동쪽으로 구부러져 축조되어 동문터로 연결되며, 남벽은 안쪽높이 1.5~2m, 바깥높이 5~6m가 남아 있음
- 성벽은 자연석을 가로 쌓기 하였으며, 바깥 면을 자연스럽게 맞추어 그 안쪽으로는 같은 크기의 돌을 엇물려 쌓았으며, 성벽의 아랫부분에서 위로 올라 갈수록 조금씩 뒤로 물려 쌓았는데 그 경사는 3~5° 정도임
  - 전체적인 성벽의 축조방법은 남아 있는 상태를 짐작해 볼 때, 안쪽 높이 2m, 바깥 높이 6~7m정도의 협축으로 쌓았다고 생각된다. 문터는 동서·남·북에 각각 1개씩 4개소가 남아 있음
- 적오산성의 서문 터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직격 1.2m의 돌로 만든 우물이 있으며, 성안에는 4개의 건물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백제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의 것으로 이를 통하여 성의 사용 시기를 알 수 있음





[그림 3-26] 적오산성의 특성 및 주변 현황도

## 제 4 장

---

### 결 론





## 제4장 결 론

- 본 연구에서도 제기 하였듯이 산성은 과거의 아픈 역사일 수도 있으나, 이제 이러한 어둡고 무거운 기억을 새롭게 재인식하여 도시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으로써의 가치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음
- 대전의 산성유적이 41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 24개소는 국가사적 또는 시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17개소는 미지정 상태로 있다. 대전 산성 존재의 의미는 대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증명하는 문화유산이자 지리적 요충지 및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과 면모를 부각시켜 주는 소중한 자산임
- 즉, 대전이 가지고 있는 '산성(城)도시'의 면모를 널리 알리고 문화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역 내 41개 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대전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성트레킹, 산성의 보존과 활용 사례발표 워크숍, 대전 산성 사진전, 대전산성 가이드북 제작, 청소년을 위한 산성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향후 산성의 보존, 관리, 활용을 도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대전시는 산성을 대전의 대표문화유산으로 브랜드화하여 산성의 도시로서 전국에 알리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우선 관내 분포 산성의 권역별 특성에 따른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계족산성 이외에 주요산성에 대한 국가 사적 추가지정을 통한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계족산지구는 계족산성을 비롯한 여러 개의 군소 산성을 묶어 역사테마 및 웰빙문화 코스로 개발하고, 보문산지구는 보문산성과 사정성을 비롯해 오월드와 보훈공원 그리고 뿌리공원 등을 연계한 녹색관광체험코스로, 갑천지구는 월평동산성을 보수정비하여 도시근린공원의 웰빙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
- 특히 월평동산성은 인접한 도안신도시 내 상대동 고려건물지 재현사업과 맞물려 향후 고대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정책연구보고서 2011-00

## 산성의 도시 대전에 관한 기초연구

---

발행인 이창기  
발행일 2011년 11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본1길 39(월평동 160-20)  
전화 : (042)530-3500 팩스 :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

인쇄 :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 및 대전발전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